

언제까지 항의서한만... 시민사회 힘 모아야

5·18 왜곡도 넘었다 ⑨ 대책은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축소하는 움직임이 수년째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피말피말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법률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희생자가 정부로부터 보상까지 받은 '의거' 입에도 교과서 5·18 관련 내용 축소·왜곡, 육군 신병교육대 5·18 왜곡 강의, 입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무산 등 정부와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5·18 흔들기'가 끊임 없이 터져나오면서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항의 서한만 전달하고 항의 방문만 해야하느냐"는 허탈감

'5·18 흔들기' 지역민 상실감... "근본대책 마련을" 역사왜곡 대책위, 교육부·국방부 항의방문 방침

을 표시하면서도 왜곡 시도를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지역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5·18 역사왜곡대책위(대책위)는 16일 광주시와 공동으로 제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육군 신병교육 등 최근 불거진 5·18 역사왜곡과 관련해 교육부, 국방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뜻을 모았다.

5월 단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지역원로 등 20명의 각계 단체 대표가 참여한 대책위는 항의서한 전달과 함께 별도로 항의 방문단을 꾸려 교육부를 항의방문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입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국회를 다시 찾아가 정부(보훈처)를 압박하도록 호소하기로 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지난 2002년부터 끊임없이 5·18을 왜곡하는 국우인사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수사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육군 신병훈련 교육대에서의 5·18 왜곡 교육(북한군 선동 폭동설 강의)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착잡하기만 하다.



지구 온난화에 앞당겨진 식목행사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16일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서구는 지구 온난화로 나무 심기에 적절한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식목일보다 21일 앞당겨 식목 행사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 교육계 '슈퍼 목요일'

전국 교육감협의회·총장협의회 등 잇따라 개최

누리과정 예산·프라임 사업 등 핫이슈 논의

17일은 지역 교육계의 '슈퍼 목요일'이다. 이날 하룻동안 누리과정을 비롯, 대학 총장 선출 문제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 문제 등 교육계 핫이슈가 다뤄진다.

우선, 전국 시·도 교육감 15명이 한 자리에 모여 누리과정 등 교육 핵심 현안을 다루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17일 오후 3시부터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다.

후 3시부터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다. 당장, 총선을 한 달도 남지않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인데다, 3월 이후 '2차 보육 대란'이 예고돼 있어 교육감들은 한층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선대에서 열리는 '광주·전남 대학교 총장협의회'에도 교육

계의 이목이 쏠린다. 조선대를 비롯, 광주대·동신대 등 지방대 총장 10여명이 모여 학생 수 감소·졸업생 취업난 등으로 인한 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대학 구조조정과 프라임 사업 등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교수들이 '총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결의하는 총회도 이날 오후 4시 교내 해오름관에서 열린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립대인 전남대교수회도 이날 오후 4시30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교수 총투표에 상정할 총장 직선제·간선제 선출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축소·왜곡하는 교과서를 개정·보급한 교육부, 5·18은 북한군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교육하는 군당국, 수년째 입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보훈처 등의 노골적인 '5·18 흔들기'에 대해 ▲항의 성명 발표 ▲항의서한 전달 ▲항의 방문 밖에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와 관련, 5월 단계의 한 관계자는 "국우세력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이러한 안 되는 것 아니다. 군당국, 교육부,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조차 5·18을 왜곡, 축소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뚜렷한 해법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시민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동차 범칙금 오른다"

경찰, 허위 유포자 처벌키로

경찰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자동차 범칙금이 인상된다'는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SNS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서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범칙금이 인상된다'라는 글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이 글은 ▲주정차 위반 시 4만~8만원 인상 ▲과속카메라 속도 위반 시 20km 이상마다 2배 ▲신호위반 6만~12만원 ▲고속도로 통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3만원 부과 ▲하이패스 통과 속도 위반 벌금 3만~9만원 등이다. 이 같은 글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이를 문의하는 전화나 게시 글이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글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범칙금 인상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허위 사실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글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범칙금 인상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허위 사실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0 달뜨기 13:03
해질 18:42 달지기 02:24

포근한 오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5/19	보성	차차호러저비	0/16
목포	3/16	순천	차차호러저비	5/18
여수	8/15	영광	차차호러저비	2/18
나주	1/20	진도	차차호러저비	2/16
완도	4/17	전주	산 맑은 뒤 흐림	3/19
구례	0/19	군산	산 맑은 뒤 흐림	3/17
강진	2/18	남원	차차호러저비	-1/19
해남	0/18	홍산도	차차호러저비	6/12
장성	2/18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동	0.5	동	0.5~1.0
남해	남바다	동	0.5~1.5	동	1.0~2.0
남해	남바다(동)	동	0.5~1.5	동	0.5~1.5
서부	남바다(서)	동	1.0~2.0	동	1.5~2.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낮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9:07	21:19	02:26	01:21
여수	04:17		10:53	
	17:00		23:00	

주간 날씨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	☁	☀	☀	☁	☁	☀
11/15	11/19	7/17	7/17	6/17	5/16	4/15

"이세돌 선배에게 마음 전하고 싶어요"

신안 비금동초 학생 24명 손편지 전달키로

후배들이 '선배' 이세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뭘까.

신안군 비금동초교 학생들이 17일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와의 경기를 치른 '선배' 이세돌(33) 9단에게 손편지를 쓴다. 비금동초교 학생들은 1학년 5명, 2학년 5명, 3학년 6명, 4학년 4명, 5학년 3명, 6학년 1명 등 24명이다.

후배들의 편지에는 '1주일간 전 세계를 들쭉거리게 한 '모교' 선배에 대한 자랑스러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승을 거둔 치열함과 도전 정신 등에 대한 후배들의 순수한 생각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정원 교감은 "손편지 운동본부의 제안을 받은 뒤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 9단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모교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도전정신과 인내력 뿐 아니라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교사들의 공통된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최 교감은 "학생과 전 교직원들이 대국을 지켜보면서 한 마음으로 응원했고 이번 편지 쓰기에 대해서도 모든 학생들이 즐거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9단의 모친 박양래(70)여사는 "이번 대국을 지켜보면서 아들을 응원해준 고향 주민, 친지, 국민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알파고와의 대결은 세돌이가 기존의 바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경험으로 바둑 실력을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을기자 dok2000@

총선 후보 동영상 게시 선거캠프 관계자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선거운동할 수 없는 단체의 이름으로 총선 예비후보 동영상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캠프 SNS 팀장인 A씨는 온라인모임을 결성후 후보의 선거운동

용 동영상 게시한 혐의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향우회, 친동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회와 계 등 사적 모임은 단체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묵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이 단열성

서까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뒤틀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은학수정 ☎ 061-461-1800 H. 010-3631-0372

환상의 섬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확여행 등 예약 064-739-8899

제주아이브 제주아이브 1988-24 (99년) (99년) (99년)

통나무 독재형객실	편안도움을 직접 수이며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통나무 독재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스카이힐스cc,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명실코스 15분, 성판악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한 입지, 차량이동시간임
쇼핑의 편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 차량이동시간임
엘리베이터먼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적용(단, 상수기 - 온수수기 - 연휴기간 제외)
렌트가 90% 할인	별라 15분 통나무원목 1박 + KS or YF소나타 24시간 79,900원(비수기 주중 기준)
단체수요 사설잔비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확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완벽,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완벽, 조·중·석식가능